

광주매일신문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음력 12월 10일)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外地人' 광주 아파트 원정투기 '활개'

지난해 서울시민 등 외지인들이 광주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 과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값비싼 수도 권 아파트 대신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외 지인들의 원정투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 로 분석된다.

21일 본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민이 아닌 '관할 시 도 외 서울・기타' 거주자가 광주지역 아 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9천332건으로 전 년 대비 34.1%(2천372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총 8 38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0 건 안팎에 머물던 매입 건수는 11월과 12 월 들어 각각 146건, 154건으로 껑충 뛰

더욱이 지난해 12월 매입 건수를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85 .1%(100건) 늘어 3배 가까이 치솟았

서울 거주자를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 들의 매입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관할 시도 외 기타' 거주자 의 매입 건수는 8천484건으로 전년 대 비 45.5%(2천654건) 늘었고, 지난해 12 월 매입 건수는 1천463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76.2%(633건) 증가한 것으로 나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북구 지역 아파 트 매입건수(2천867건)가 전년 대비 81 .6% (1천289건) 증가해 타 자치구에 비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서구(66 .9%), 동구(46.4%), 광산구(4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 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 로 지역민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투자 수 요가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난 심화와 더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 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일부는 지방 공시 가 1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 렸다고 제언한다.

지방의 경우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 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 파트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 지역민들의 광주지역 아파 트 원정 투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광 주지역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두드러졌

지난해 매매 1만건 육박…서울시민 매입 838건 북구 최다 거래…"외지인 투기로 가격상승 부추겨"

지난달 광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랐으며, 지난 해 연간으로는 1.94% 상승했다.

2015년 4월(1.51%) 이후 6년 만에 처 음으로 1%대를 넘긴 것으로, 작년 연간 (0.56%)과 비교해도 1.38%p 차이가 났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억4천 36만9천원)도 9년 전과 비교해 무려 1억 381만5천원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 위원은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 자가 크게 늘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을 이끌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해

당 지역의 가격 키 맞추기에 따라 서울이 싸 보인다는 심리적 착시 효과로 이제는 지방 거주자들의 상경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그러면서도 "올해부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 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경 투 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외지인의 투자수 요 증가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외지인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 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 /최환준기자



취임 선서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부인 질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툼하고 오 래된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성경은 바이든 대통령 가문이 1893년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것으로, 상원의원과 부통령 등 바이든의 공 직 취임 선서 때마다 동행한 것으로 미 언론이 전했다. 두께가 13㎝ 가량 되며 오랜 역사를 보여주듯 가죽 표지가 많이 낡았고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2·4면 /AFP=연합뉴스

이틀간 한 자릿수…광주 코로나19 진정세?

나흘 연속 사망자…누적 사망 16명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400명 초반을 오르내리며 안정 국면에 접 어든 가운데 광주지역 또한 이틀간 확진 자 수가 한 자릿 수로 그치면서 불안한 안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난 18일부

터 광주지역 코로나19 고령 확진자 중 사 망자가 매일 1명씩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 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 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천4 71명이다. 시에 따르면 이틀간 영암 관 음사 관련 3명, 중앙병원 관련 1명, 해외 입국자(이집트) 1명, 기존 확진자에 의 한 추가 감염 2명, 감염 경로 조사중인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일일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으 나,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날 16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 A씨(광주 1349번)는 70대의 효정요양병원 입소자다.

광주에선 지난 18일 13번째, 19일 14번째, 20일 15번째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까 지 4일간 연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한 효정요양병원에서 는 지난 2일 지표환자의 확진 이후 모두 153명 (환자 106·직원 32·가족·지인 등 1 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겨울기자

소상공인 긴급자금 1천억 푼다

광주시, 집합금지업종 등 추가 민생 안정대책 발표 중기 경영자금 2천200억으로 확대…앞당겨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 해를 입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례보증 융자로 1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 를 위해 2천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 금을 푼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브리핑을 갖 고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으로 경영위 기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광주시가 지난 해 12월30일 2차로 공급한 500억원의 3 무(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개시 하루만에 마감되면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제3차 지원책은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출조건과 이자 및 보증료 지원(1년 간)은 지난 제2차 사업과 동일하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년 후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 대한 낮췄다.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모든 소상공인 중 지난 1-2차 3무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다.

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자금신 청이 가능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 건으로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3無)'을 원하는 소 상공인은 2월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 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 받 을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 행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사업자 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 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 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2천200억원 규 모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 정된 1천600억원 지원은 설 명절 이전부 터 시작한다. 하반기에 600억원을 추가 로 지원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정겨울기자



창조클럽 아카데미 출연 <mark>강사진</mark>







이경상 교수







임진모 음악평론가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

박서기 소장

◈ 창조 ·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는 고품격 강의

오정해 방송인

- ◈ CEO와 리더들의 특별한 만남의 장, 인적네트워크 확장 ◈ 각 분야의 성공 인물 강사진 포진, 융·복합 마인드 함양
- ◆ 우리 발전 방향은 우리 스스로!에듀솔빙워크숍 ◈ 창조기획자의 든든한 지원군, 전문가 HOT-LINE
-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힐링의 시간

모집인원 100명 내외

+

교육기간 2021년 3월 개강 ~ 12월 종강 (연 16회 강좌)

지원자격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 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리더가 되고 싶은 분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내 아젤리아홀 (예정)

격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6시부터 식사 제공)

수 강 료 380만원 (부가세 포함)

광주은행 016-107-391900 (주)광주매스컴

모집기간 2021년 2월 말까지 접수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문의전화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5, 2007